

[보도자료]

한국오가논,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여성건강 챙기고 실천하는 '워크포허헬스' 걷기 캠페인 개최

- 3월 한 달간 스스로의 건강 챙기며 위기임신 가족 위해 걸음으로 기부할 수 있는 걷기 캠페인 진행
- '빅워크' 앱에서 하루 3만 보까지 기부 가능... 여성건강 현황,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정보도 제공
- 글로벌 오가논, 전 세계 임직원들이 여성건강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3년 연속 유급휴일 부여

서울, 2024년 3월 4일 - 한국오가논(대표 김소은)이 오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약 4주간 걸음 기부를 통해 스스로의 건강 챙김과 동시에 여성건강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워크포허헬스(walk for her health)' 걷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국오가논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는 캠페인을 해오고 있다.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챙길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한다는 취지를 이어, 올해는 '여성의 건강을 위해 걷는다'는 의미의 '워크포허헬스' 캠페인을 열며 참가자 모든 걸음이 기부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걷기 캠페인은 걸음 기부 플랫폼인 빅워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하루 3만 보까지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캠페인 상세 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건강 현황은 물론,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필요성과 실천 방법 등 유용한 정보도 함께 확인 가능하다. 한국오가논은 캠페인의 총 기부 걸음 수가 일정 목표를 넘어설 경우 작년에 이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경제적, 의료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위한 지원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오가논을 포함한 글로벌 오가논은 전사적으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 세계 임직원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고, 주변 여성의 건강을 챙기며 여성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올해도 3월 8일 당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한국오가논 임직원들은 사내 커뮤니티를 통해 '세계 여성의 날'을 어떻게 보냈는지 공유하거나 건강한 삶을 함께하고 싶은 여성과 함께 걷는 모습을 인증하는 등 다양한 미션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7일에는 광화문 오피스의 주변 산책로를 함께 걷는 등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내 행사도 개최한다.

한국오가논 김소은 대표는 "한국오가논은 출범 이후 3년 연속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캠페인을 이어 오며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메시지를 전해왔다. 사회구성원이 여성건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무엇보다 여성이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로 이어지는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초저출생, 초고령화 상황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여성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의 여성건강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글로벌 오가논은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을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며, 세계 여성의 날 전사 유급휴가 외에도 여성건강에서의 치료 옵션 확대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협력 및 글로벌 기부금 지원 등 여성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ORGANON

한국오가논 2024 '세계 여성의 날' 걷기 캠페인

#워크포허헬스

여러분의 한걸음 한걸음이 여성건강 취약 계층을 돕습니다

캠페인 기간 • 3월 4일(월) ~ 3월 29일(금)

한국오가논은 여성건강에 주력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오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워크포허헬스 걷기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본 캠페인이 목표 걸음 수에 도달할 경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경제적, 의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신 가족들을 위해 기부금이 전달됩니다. **여성건강 취약계층을 돕는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캠페인 참여 바로가기

